

충북광역치매센터 우수사례경진대회 최우수

‘치매환자 생활기능보조장비 체험 시범사업’ 고평가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가 진행한 ‘치매환자 생활기능보조장비 체험 시범사업’이 2020년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특화사업운영 부문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의 치매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마련한 행사로서 전국 광역치매센터를 대상으로 3개 부문(지역특화사업 운영

등)과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6개 부문(조기검진활성화 등에 걸쳐 공모가 이뤄졌다.

총 195개소가 참여해 두 차례 서면심사를 마치고 최종결과를 중앙치매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가 출품한 우수사례는 올해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치매환자 생활기능보조장비 체험 시범사업’이다.

중증의 치매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사

용하는 보조기기 등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향후 증상 악화로 사용할 때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증의 치매상태에서 진행하면 교육과 습득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수사례 공모에서도 단양군은 조기검진 활성화부문에서, 음성군은 지역특화사업운영부문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단양군은 1616(단양읍내 전통시장, 장날(1·6일)을 활용한 치매 서포터즈) 치매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치매선

별감사 확대를 위한 ‘숨어있는 치매선별검사 무경험자를 찾아라’ 사업을, 음성군은 치매안정망 구축 일환으로 부부치매기구를 발굴해 이웃주민과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 ‘부부치매 맞춤형 1:1매칭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했다.

김용호 도 보건정책과장은 “올해는 치매관련 인력이 상당부분 코로나19 업무로 차출되는 등 여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각자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어 매우 고맙다. 타 지역 우수사례도 살펴보고 우리지역에 적용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2020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코로나 속 활약’ 20개 우수기업 인증

충청북도는 많은 어르신을 채용하고 근로환경이 우수한 2020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기업 2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노인일자리 창출 인증제는 도내 소재 만60세 이상 노인 고용비율이 5% 이상인 기업 중 근로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충북도는 14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인증제를 시행해 올해 7번째를 맞이하며 장기적으로 민간 부문 8000개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이번 인증제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청주 2개소, 충주 2개소, 제천 6개소, 옥천 1개소, 진천 3개소, 괴산 2개소, 음성 4개소가 선정됐다.

인증기업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고(0.5% 금리인하) 해외 판촉, 지방세 세무조사유예(2년)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노력한 결과 2017~2018년에 선정됐던 7개 기업이 재인증 받는 쾌거도 이뤘다.

선정된 기업들은 하나같이 “올해 또 다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라며 “제2의 인생을 맞은 어르신들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채용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 시군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제천시 선정됐고 우수 기관으로 충주시와 음성군이 선정됐다.

김정기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시책을 더욱 확대해 어르신과 기업 모두가 행복한 충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눔으로 따뜻하게’ 충북 희망2021 나눔캠페인 출범

‘사랑의 온도탑’ 제막 후 모금 시작 코로나19로 캠페인 기간·목표액↓

지역사회 이웃을 돕기 위한 연말연시 모금 행사인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이 1일 충북에서 시작됐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사랑의 온도탑’을 제막하고 62일간의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충북의 올해 목표 모금액은 61억 5000만원으로 직전 나눔 캠페인 모금액 68억3300만원의 90% 수준이다.

충북모금회는 지난해보다 캠페인 기간이 10일 정도 짧아졌고, 경기 침체와 코로나19까지 겹쳐 목표액을 줄였다고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는 축소됐지만, (주)두성기업 윤인기(40) 대표가 2000만원을 기부하며 충북 59번째 아너 소사이터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올해 각 시·군 사랑의온도탑 제막은 진천·음성 7일, 충주·제천 8일, 옥천·영동 9일 순으로 진행됐다.

기부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도내 전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등에 설치된 모



1일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열린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금함, 기부계좌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방송국 성금 계좌는 청주KBS 301-0036-6830-11(농협), 충주KBS 301-0036-6835-91(농협), MBC충북 301-0036-6833-11(농협), CJB 청주방송 313-01-148494(농협) 등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QR 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모금 활동도 한다. 기부금 전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된다.

모금 상황은 상당공원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목표액의 1%인 6150만원을 달성할

때마다 온도탑 온도가 1도씩 올라간다. 노영수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코로나19 확산여파로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곤궁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충북도민들이 적극적인 나눔의 손길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충북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위한 도움벨방’ 운영

신관 1층 민원실 설치... 20일부터 운영

충북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실 도움벨방을 설치해 이달 21

일부터 운영한다.

신관 1층 민원실에 설치된 도움벨방은 어르신과 장애인,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벨을 누르면 담당 공

무원이 직접 찾아가 민원을 안내하고 처리하는 등 원스톱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도움벨방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김두환 도 자치행정과장은 “도움벨방이 민원실 방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 우수 사회복지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15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2명 선정... 비대면 시상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는 제15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전수했다.

자원봉사자의 날은 도민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12월 5일을 기점으로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관련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공자 표창만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2020년 우수 사회복지자원봉사 유공자 표창은 충청북도지사 표창 8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8명(자원봉사자 4명, 인증요원 4명),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표창 6명 등 총 22명이 표창을 받았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도내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 중 최다 실적 등록 기준으로 뽑힌 5개소에 우수 자원봉사관리센터 현판을 증정했다.

김영석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VMS)에 등록된 충청북도의 자원봉사자 수는 22만3천380명이다.

2020년 우수 사회복지자원봉사 유공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충청북도지사 표창(8명)
 강정분(다사랑회), 박은옥(청주내덕노인복지관), 박재순(재능나눔연합봉사단), 박종득(스마일봉사단), 이상분(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순남(나우리회), 이우식(단양장애인복지관), 정은식(재능나눔연합봉사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8명)
 봉사자: 김경수(무지개도서관), 엄소영(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이병국(음성꽃동네 노숙인요양원), 김학래(무지개도서관), 인증요원: 박영섭(옥천군노인장애인지원센터), 김민지(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근희(충주시노인복지관), 차원희(충북혜능보육원)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6명)
 마정명(다사랑회), 박경애(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박금선(나우리회), 임현숙(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전미숙(스마일봉사단), 차성자(다사랑회)
- 우수관리센터 현판 명단(5개소)
 단양노인복지관, 청주서원노인복지관,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음성꽃동네부활의집 노인요양원, 한생명문화원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위기 속 빛난 진천군 '맞춤형 복지'

복지부 평가 '전국 최우수'... 올해 예산 1512억원 집행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작년보다 지원 가구 169% 증가

코로나19 확산과 올 여름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펼친 진천군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14일 진천군에 따르면 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진천군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천512억원의 복지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주민 지원

는 총 9천231만원의 생활비도 지원했다.

각계에서 답지한 6억7천만원의 성금과 5억6천만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신속히 전달, 취약계층을 도왔다. 올해 충북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맞춤형 복지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종합병원과 연계해 돌봄 대상 주민이 퇴원한 이후에도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돌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돌봄 대상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한다. 마을별 복지사를 양성해 마을 거점 돌봄센터도 운영한다.

충북혁신도시에 35억5천만원을 들여 장난감 도서관, 놀이 체

험실 등을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연면적 998㎡)를 지난 10월 개관했고, 공립 치매 노인 요양시설과 국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복지 인프라 확대에도 공을 들였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각종 경제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에 이를 줄 올린 데 그치지 않고 주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8일 '2020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도내 최초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청년카페 호시절)을 개소해 맞춤형 자립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음성군 보건소 '충북도 자살예방 우수기관' 선정

생명사랑마을 운영·자살고위험군 발굴 관리 등 주요

음성군 보건소가 '2020년 충북도 자살예방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3일 군에 따르면 '2020년 충청북도 자살예방 성과평가'는 도에서 지난해부터 도내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살예방사업 추진사항을 재점검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해 전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평가다.

군 보건소는 생명사랑마을을

운영하며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추진하고, 우울증과 자살척도가 높은 고위험군의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 비대면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마을 지도자 연계 자살예방 활동, 자살시도자와 우울증 환자 의료비 지원·관리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음성지역자활센터, 음

성군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자살위기에 응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관리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권태복 보건소장은 "자살은 음성군민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숙제"라며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발판삼아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관리하는 사회적 안전망 조성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청주시지회, 저소득 아동에 1천만원

(사)충북어린이집연합회 청주시지회(회장 성락준, 이하 청주시 어린이집연합회)가 2일 청주시에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는 한범덕 청주시장과 성락준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시 저소득 아동을 돕기 위해 모은 성금이다.

시는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전달한 후원금을 지역 내 저소



성락준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이 2일 저소득아동들을 위해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후원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한편,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017년 어린이집의 모든 분과별 연합회가 통합해 출범했으며, 올해 선출된 제2기 성락준

회장을 중심으로 청주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충주시, 저소득층에 의류 구입 쿠폰 지원

170가구에 5만원씩... 시, 수상 포상금으로 마련 '뜻깊어'

충주시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의류 구입 쿠폰'을 지원한다.

시는 30일 소득중위 소득의 75% 이하로 읍면동 추천을 받아 170가구를 선정해 대상자별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류구입 쿠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복지 사회보장급여 점검 분야평가'에서 충주시가 대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포상금으로 마련한 사업이다. '의류구입쿠폰은 동절기를 맞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시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쿠폰을 지원받은 주민은 지난 10일까지 신분증과 쿠폰을 지참해 지정업체를 방문하면 필요한 의류를 구입할 수 있었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지난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받은 포상금 일부를 담당 공무원들의 뜻을 모아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저소득 주민이 다가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주시, 저소득층 6천여명에 보험 지원

청주시는 내년 저소득층 6천여 명을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에 무료 가입해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5세부터 65세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 기탁금을 받아 1인당 연 1만원의 보험료를 내준다.

나머지 연간 보험료(남자 3만1천900원, 여자 2만1천100원)는 우체국에서 보낸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재해 사망 유족 위로금(2천만원), 재해 입원

비(1일 1만원·최대 120만원), 재해 수술비(최대 100만원)를 보장 받는다.

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 등을 돕고자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이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주시에 위치한 한 지역아동센터 전자출결시스템에 한 아동이 출결을 하고 있다.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전자출결시스템 구축

충주시는 이달 지역아동센터 35개소에 '등·하원 안심알림' 전자 출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등·하원 안심알림이 출결시스템은 아동이 등·하원할 때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태그하면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문자가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시는 아동의 등·하원 안전 보장 및 학부모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내년 1월 시스템 정상 운영을 목표로 충주시 지역아동센터별 지원을 통해 센터별 업자 선정 및 계약 후 전자출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조길형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도록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등·하원 안심알림의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안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충주시에서는 390여 명의 아동이 35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이다.

제천시보건소, 코로나블루 예방 심리지원

전문의 유선 상담부터 치료비 지원까지... '토탈케어'

제천시보건소와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재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층 정신상담을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및 가족을 포함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상

킷 안에 자가 우울검사표를 포함한 심리방역 키트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제천시보건소 및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련 자세한 안내는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43-646-3074)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비복지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편집고문경주필 김춘길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043-234-0849

E-mail: cbssn@naver.com 홈페이지: www.cwin.or.kr

단양군보건소 "장애인 건강, 영양이 중요"

재활대상자에 '영양바구니' 전달

단양군보건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장애인 재활대상자들의 재활 운동 및 프로그램이 중단되며 신체적, 심리적인 건강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영양바구니 사업을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재활대상자에게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관리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상자 100명에게 영양바구니를 직접 배부했으며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비대면을 원칙으로 대면 방식도 함께 진행했다. 영양바구니 구성은 두유, 견과류, 율무차 외 3종과 기타 하루 보물품으로 파스, 스트레칭 기구 외 3종을 전달해 실내 스포츠레저 방법 등 맞춤형 재활 운동법을 집

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등 건강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 낙상·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로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가 큰 주민들을 위해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영양바구니 사업 외에 다양한 사업 추진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1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엔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계룡센터, CJ수원반포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 저운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낙농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낙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부로, CJ유동(증평점), 송림푸드, 청주유통, 에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관(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엘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블러, (주)피어미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샘플리아, 침앗식품, 라온엘에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흥덕기초푸드뱅크 동양오츠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늘보쌈, 설악추어탕, 좋은아침, (주)케이씨푸드, 명동보리밭, 삼육우유서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헛 청주대점
- 청주사랑나눔푸드뱅크
- 청주제일푸드뱅크
-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백식품, 두
- 청주세영푸드뱅크
- 좋은아침오창점, 파리바게뜨쌍용점, 두레주르한라점, 두레주르산업단지점, 기본종은남, 그린하우스과자점, 오정출마트, 자갈치 민속떡집, 칠떡궁합, 광주기독교서점, 전원푸드락, 낙원떡방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두레주르 금천장점, 파리바게뜨 분평점, 한솔 제2농점, 공천떡집,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두레주르 금천뉴타운, 따베오 베이커리, 행복8떡집, 유신민방,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떡이랑, 두레주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인역점, 영농조합법인 희여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인점, 천명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회(후생사), (주)월드이심일에이치구, 자연애연영농조합법인, 천명, 김기네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주주랩, 서울우유지소, 시아스우유, 두레주르 분평점, 목행청과, 금관할인마트 율랑점, 청주특덕(주), 무외에 두와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산과들F&C, 파리바게뜨 오정중앙점
- 증평군푸드뱅크 거림기계, GS슈퍼 증평점, 케이하우스, 금호숯불갈비, 서산식품, 좋은아침 율랑점, 파리바게뜨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투기, 단비생사, 단진도너츠 증평점, 델리칸 증평점, 그린유통, GS25 증평대로점
- 괴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괴산잡곡, 신선노포, 신선촌, 운산식품, 제중당약국, 풀무원, 서미숙, 유인숙, 장국희, 따베오베이커리, 두레주르괴산점, 파리바게뜨괴산점, 매키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성베이커리
- 옥천군푸드뱅크 두레주르 엘마트점, 구기네 농이보강, 조마루 감자탕, 독도가든, 행운목, 미가(한정식), 이가화로, 옥천청담로타라클럽, (주)한일후드
- 영동나눔푸드뱅크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서울우유(보은점),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원원 삼원농장, 영양떡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단진도너츠(금양), (주)이차자연면, (주)후드원, 김점철소머리국밥, (주)맑은해오름,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두레주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로,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백암), 삼육우유, 파리바게뜨(덕산점)
-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파르바게트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도식품, 윤지영, 김경식, 리브가왕만두전방, 김수향, 델리칸(이월점), 에스엔푸드, 자해식품, 명가떡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돌식품, 대하유통, 델리칸충주교현점, 떡보의하루, 두레주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과유통, 삼일상회, 서울우유치즈충주대리점, 유원유통, 육사청과, 은혜청과, (주)미림농산, CS코리아, 자미원에프앤지, 충주청과, 하나로 베이커리(충주점), 한아름점과
-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유업, 두리메리점,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씨푸드, 문우통, 씨알푸드, 오투기 제천점, 오투기, 대상김치, 푸른촌, 풀이리인, 365할인마트, 크리스피리제천중앙점, 호수상사
- 단양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사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선데이푸드, 대상청정원

내년부터 영동시니어클럽 운영

노인 일자리 창출·활력 '기대'

충북도는 9일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영동군에 신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청남시니어클럽 설치 이후 도내에 다시 시니어클럽이 설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지정은 9일 학계 및 노인 일자리, 노인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영동군은 시니어클럽 위탁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단법인 영동감고울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형 일자리를 추진해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할 여건과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형 사업을 개발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다.

현재 충북의 시니어클럽은 11곳(정주 6, 충주 1, 제천 1, 옥천 1, 진천 1, 음성 1)로 도내 노인일자리 사업의 55% 이상을 수행하며, 카페와 반찬가게 등 전문성과 창업 노하우가 필요한 노인일자리 사업장도 다수 운영하고 있다.

김정기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가 강해지고 있음에 따라 전담 기관이 필요한 실정으로 영동시니어클럽의 역할

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60세 이상 어르신이 사회 일원으로 참여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시니어클럽은 노인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역에 적합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홍보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1년 충북도의 노인일자리 2020년 2만8820개에서 5% 증가한 3만240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영동군 코로나19 대응 치매 돌봄체계 개선

도내 최초 인공지능 스피커 보급... 인지강화 훈련 등 제공

영동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응한 주민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돌봄 공백이 우려되고 있지만 군은 최신기술을 접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선제 도입해 지역의 새로운 활력과 웃음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센터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4200여만원의 사업비로 인

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한 정서케어와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개시했다. 군정방침인 '복지의 맞춤형에 맞춰, 박세복 군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도내에서는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코로나19시대에 맞춘 언택트 건강관리 기술이 핵심으로, 대상자 각 가정에서 인지강화 훈련과 감성 대화 등을 제공한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대상자와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100

여명의 노인이 대상이다.

음악 및 라디오 감상, 날씨, 운세 등 기본 서비스뿐만 아니라 치매검사 및 예방을 위한 '두뇌톡톡' 프로그램과 복약안내, 긴급 SOS와 같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기능들이 포함돼 있다.

사용한 날짜와 기록 등은 통계 데이터로 체계적 관리되며, 전체 안내 필요시, 스피커 사용자에게 음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어 동시 안내가 용이하다.

글을 잘 모르는 노인들도 대화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치매 예방 효과도 커, 대상자는 물론 가족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신개념의 미래형 건강관리시스템인 'AI 돌봄'을 통해 지역 노인들이 주기적으로 인지능력 개선 훈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치매 조기 발견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군은 대상자에게 1년 무료로 지원하고,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대응한 비대면·비접촉 사업으로, 추후 사업성 검토 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치매안심센터관계자는 "초고령 사회에서 '치매'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라며 "과학 기반의 종합적인 치매통합서비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만들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괴산군·괴산군의회·괴산경찰서 등 5개 유관기관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괴산군-유관기관 5곳, 여성친화도시 협약

괴산군은 지난 11월 27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괴산군의회,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은 괴산군, 괴산군의회, 괴산경찰서, 충청북도괴산중명교육지원청, 괴산소방서 등 5개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차영 괴산군수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지역사회 안전증진, 여성의 활동역량 강화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차영 군수는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기로 하신 기관장들께 감사 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여성들이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을 만들고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정책 전반에 걸쳐 군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양성평등을 실현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 가결

나눔문화·공동체성 확산 기여

지난 18일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충청북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와 기부식품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내 나눔문화 및 공동체성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한 도 차원의 시책 수립·시행을 규정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는 정책복지위원회 허창원 도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공포 뒤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충북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충북광역푸드뱅크)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은 이를 포함하여 총 31개소가 있다. 2019년에는 이용자 21,775명에게 약 152억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제공했다.

다. 또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에도 함께 힘을 모으고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차영 군수는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기로 하신 기관장들께 감사 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여성들이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을 만들고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정책 전반에 걸쳐 군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양성평등을 실현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증평군 교통 소외계층 편의 정책 '눈길'

시외버스터미널 환경 개선·행복택시 확대 운영

증평군이 교통 약자나 소외지역의 편의제공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군은 교통약자를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환경을 개선한다.

지난달 27일 착공해 내년 1월 준공예정인 3억원(국비 1억 2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을 터미널 개선사업에 투입한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0년 여객자동차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 인증사업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BF인증제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축물, 공원, 여객시설 등을 인증하는 제도다.

군은 장애인 전용화장실, 자동문, 점자블록 등을 설치해 편의성을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다.

승·하차장 지붕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행선지 안내판과 대합실, 터미널 외벽도 산뜻하게 꾸민다.

증평시외버스터미널은 1979년에 지어진 연면적 3463㎡의 건물로 연평균 14만 6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했다.

또한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행복택시도 18년 2개 마을, 19년 3개 마을, 20년 5개 마을로 대상마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용주민도 18년 1275명(1174회), 19년 1539명(1417회), 3335명(3296회)으로 점차 늘고 있다. 행복택시는 교통소외지역 마을이 신청·지정되면 버스기본요금(15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이 이용권을 발부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증평읍 울리 2리, 용강 1리, 덕상 1리, 연탄 1리, 도안면 노암 3리를 대상으로 운영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나 소외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옥천시니어클럽 돌봄 전문가 과정 교육생들이 수료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옥천군 경력 단절 여성 취업 도와

스마일시니어 돌봄 전문가 과정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옥천군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18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냈다.

군은 스마일시니어 돌봄 전문

가 과정 교육생 20명을 선발해 지난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교육과정 252시간을 진행했다.

이 교육과정은 옥천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스마일시니어 돌

봄 전문가 과정(243시간), 직업의식교육·감동관리·강점분석(6시간), 노동시장의 흐름 및 이력서 면접코칭(3시간)으로 진행됐다.

지난 11월 30일 옥천여성취업지원센터에서 스마일시니어 돌봄(요양보호사) 전문가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 18명이 수료했다.

수료한 18명의 교육생들은 주로 경력이 단절된 40대부터 60대 여성들로 최고령인 73세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취업에 대한 열정을 보이며 교육 전 과정을 수료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옥천여성취업지원센터 박혜영 실장은 "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일자리 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에 교육을 수료한 18명 모두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가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문화센터 '보은로점' 개장

보은교회 장소 제공... 카페시설 갖춘 문화체험 공간



보은교육지원청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문화센터 보은로점을 보은교회 교육관에 문을 열었다.

지난달 23일 보은교육지원청은 보은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방과후 청소년들이 잠깐 머물다가가거나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로 보은교회 교육관에 '보은로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사용 간 준비

기간과 시범운영을 거친 후 23일부터 본격 개방을 하는 청소년 문화센터 보은로점은 보은교육지원청과 청소년배움터 업무협약을 맺은 보은교회(목사 안신홍)측의 적극적인 시설 제공으로 문을 열게 됐다.

보은교회 측은 청소년 센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관 2층을 카페시설로 단장하였으며, 보은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에서는 소품공예 꾸러미와 활동도우미를 지원해 센터를 심심치 않은 문화체험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자 교육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공간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아쉽지만, 새로운 센터를 개장해 기쁘다"며 "이번 문화센터 개장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행복한 청소년 센터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제' 시행

12일부터 시행... 구체적 관련 기준 마련

12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국가자격 제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2018년 법 개정에 따라 국가가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 업무 등을 하며,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업

무를 한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면 의료사회복지사나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의료사회복지사 1천302명과 학교사회복지사 1천598명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별도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

하면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속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새 국가자격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이나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 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개최

서상목 회장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전 세계에 알릴 것" 사회공헌 유공 단체 정부포상... 우수 프로그램도 선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달 30일 용산드래곤시티 백두홀에서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온라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인정제 시상식, 2부 인정제 토크 콘서트로 진행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부가 2019년 공동 시행하여 올해 2회를 맞이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mmunity)는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사회공헌부문 유공단체로 경남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공사,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

단, GS파워, 창업진흥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9개소가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사회공헌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주)공공디자인이, 기술보증기금, 대자인병원, 세종도시교통공사, 엘지이노텍(주)구미2공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오렌지디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개소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에 따라 인정패를 받은 기업·기관은 지역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 문제 해

결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곳으로 공공기관 115개소, 대기업 40개소, 중견기업 18개소, 중소기업 47개소, 사회적기업 20개소, 소상공인 4개소, 협동조합 5개소, 교육기관 4개소, 의료기관 9개소, 기타 3개소 총 265개소이다. 또한 이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인센티브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정패를 받은 기업과 기관은 1년간 인정제 엠블럼 사용권이 부여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보증·보험 지원과 경영컨설팅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참여기업 수는 2019년 121개소 2020년 265개소로 작년보다 2배가 넘는 기업·기관이 인정패를 수여 받았으며, 이는 우리나라 기업과 기관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위소득 50% 이하 등 요건 충족시 1인당 300만원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4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합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만 15세부터 69세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청년의 경우 고용 사정 등에 따라 재산 요건 상한이 별도로 정해진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비 등을 고려해 공제할 수 있다. 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단순히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부터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아동수당'과는 별개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0세부터 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 정부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모든 만 0세부터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다. 첫째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한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10만5000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진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현재는 휴직 1개월부터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개월부터 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 또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해준다.

아동학대, 연간 2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보호'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호체계 강화

앞으로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는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가 시행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재학대의 위험이 클 경우 피해 아동에게 응급조치를 하게 돼 있으나,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이뤄지기까지 분리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즉각 분리제도가 적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

'평균 3년'... 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6개월로 대폭 단축... 개정안 국회 통과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절차가 앞으로 간소화된다. 유류금이 500만원 이하일 때 평균 3년 정도 걸리던 처리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전국에 8천여 곳이 있는데, 여기서 무연고 사망자 사례가 연간 300건에서 400건씩 나오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은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처리해야 하

는데, 민법상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급될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 시설 21곳과 노인시설 12곳 내 무연고 사망자 총 95명의 유류금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과정에 평균 3년 3개월, 길게는 7년 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런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 내 제도개선 특별 전담팀(TF·태스크포스)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소액 유류금 처리를 간소화하는 절차를 마련했고,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했던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이 500만원 이하라면 6개월 이내에 유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간소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지자체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개월간 공고를 내고, 6개월 안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유류금을 지자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주 중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법률지원변호사단'을 설치할 방침이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1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위촉 기준

1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년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입무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봉사단 혜택

1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중복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1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1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1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5. 신청 및 문의

1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본빵' HACCP 인증 취득

'본빵' 원료·제조·유통 전 과정 식품 안전성 확보 노력 빵류 20종·과자류 1종 해당... "더 많은 일자리 제공할 것"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박미선)이 운영하는 '본빵'이 지난달 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최종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마치고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취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가공, 조리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거나 오염되는 등 모든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그동안 보은군과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식품의 원료·제조·유통과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전 과정에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 '본빵'은 지난 2018년 8월 HACCP 인증 기준에 맞춘 작업장 준공을 시작으로 2020년 11월까지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식품제조가공업 및 통신판매업 허가·운영, 전 제품 영양성분 검사, 자가품질검사와 위생관리 등 체계적인 생산·납품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군에 따르면 이번 HACCP 인증제품으로는 본빵에서 생산되는 빵류 20종과 과자류 1종이 해당되며 향후 보은군의 특산품을 접목시켜 현재보다 더 많은 인증

제품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박미선 관장은 "이번 HACCP 인증을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경쟁력을 높여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직업 체험과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빵은 지역특산물인 '대추'를 활용해 만든 제과제빵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1층 본빵 카페와 속리산 말타재 꼬부랑길 카페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제천 산타원정대'에 일일 산타로 참여한 관계자들이 아이들에게 줄 선물 보따리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초록우산 충북본부 '산타원정대' 진행

청호주류·(주)대양물산 등 직원 10명 제천 일일산타 참여 취약계층 아동 45명 소원 접수... 갖고싶었던 선물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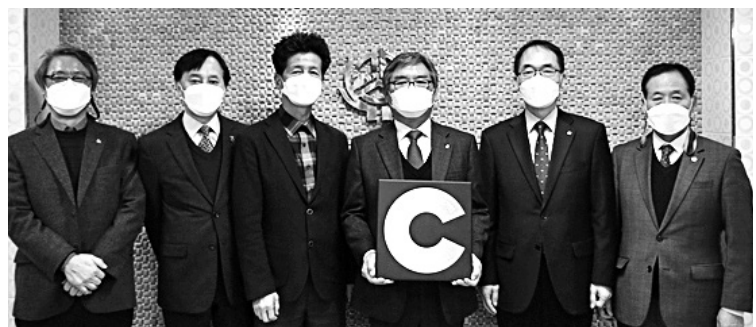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본부(본부장 김선귀)가 15일 제천 청호주류에서 '제천 산타원정대'를 진행했다. 원정대에는 청호주류, (주)대양물산, (유)대진종합주류, (합)우진종합주류, 오비맥주 충주지점 임직

원 10명이 일일 산타로 참여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해마다 호주류에서 '제천 산타원정대'를 진행하고 있는 '산타원정대'는 평소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많지만 빠듯한 형편에 차마 말을 하지 못했던 크리스마스 소원 선물을 지원하는 행사다.

충북본부는 올해 제천 신백아동복지관을 통해 제천지역 취약계층 아동 45명의 소원 선물을 접수, 이들이 갖고 싶어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일일 산타로 참여한 임직원들은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구입 비용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직접 선물을 포장하고 따뜻한 마음을 담은 희망메시지를 작성하여 함께 전했다.

성심신협,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현판식 개최

연탄 후원·물품나눔기 등 다양한 공헌활동 공로 인정 "더 많은 분 혜택 받았으면"



지난 9일 전국 신협 최초로 성심신협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수여받게 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현판식을 가졌다.

청주 성심신협(이사장 엄광선)은 지난 9일 전국 신협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수여받게 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임동현 충북도의원, 임정수 청주시의원, 흥기법 율량사천동장, 김영석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가운데

개최됐다. 청주 성심신협은 그동안 폐지되는 노인을 위한 '사랑의 리어카 30대 및 안전용품 56개'를 전달

했고, 청주시의회에서 관련 지원 조례(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청주 신흥고 농구부 1000만원 후원',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150세대에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겨울철 온정의 손길 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기매트 23개, 연탄 2000장을 후원하는 '온 세상 나눔 행사', 코로나 유행 속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라면 200박스를 기탁한 '사랑의 물품나눔기'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왔으며 그 공로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엄광선 이사장은 "앞으로 우리 지역 취약계층의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아가고, 봉사와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라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겠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지원"... 청주시 내년 바우처택시 도입

50대 도입 예정... 내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

청주시는 내년 9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바우처 택시' 50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영업을 하다가도 교통 약자가 부르면 바로 달려가는 택시다. 시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장애인(휠체어 이용 장애인 제외)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내년 8월까지 바우처 택

시 도입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내 개인·법인 택시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충북 도내에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는 것은 청주시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가 도입되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는 높아지고 택시 이용에 따른 대기 시간은 줄 것"이라고 말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뉴중앙라이온스클럽 방한용품 지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와 청주뉴중앙라이온스클럽(회장 신희섭/청야건설(주)대표)은 지난 4일 따뜻한 겨울나기 방한용품 지원사업을 위한 후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청주뉴중앙라이온스클럽은 목도리·귀마개를 지원해 겨울철을 맞아 저소득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400여명에게 사회복지단체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아

160만원 상당의 방한용품 세트 를 지원했다. 청주뉴중앙라이온스클럽은 1983년 7월 27일 창립해 현재 4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교복지원금 정기 후원, 매년 2회 집수리봉사 활동, 비정기 후원으로 지역 어르신들께 짜장면 나눔 봉사 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와 청주뉴중앙라이온스클럽은 지난 4일 따뜻한 겨울나기 방한용품 지원사업을 위한 후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는 2009년부터 전기장판, 이불지원 등 난방지원사업(360만원 상당) 후원에 이어 지역사회 자원 확대 및 새로운 기부문화 선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화정 센터장은 "앞으로도 기업 및 단체의 사회공헌활동을 독려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꼭 필요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이 직접 아동권리보호 정책 마련

굿네이버스 충북지부 모니터링단, 청주시의회에 정책 전달 스포츠·놀이시설·안전·아동학대 분야 법제정 등 필요

굿네이버스 충북지부(지부장 최은희)는 15일,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과 함께 청주시의회에서 정책제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은 최은희 충북지부장,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

션(Good Motion) 대학생 멘토 2명 및 김영근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전달식에서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대학생 멘토는 22명의 아

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단원이 실시한 아동권리실태조사에서 관찰한 일상생활 속 침해받는 아동권리를 표현한 포토보이스 활동자료를 발표하며 청주시 아동권리 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 직접 만든 환경오염, 놀이문화, 안전, 아동학대 4개 분야에 대한 아동권리정책을 청주시의회에 전달했다. 특히, 정책제안 중 '청주시 내 아동·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스포츠 시설과 놀이공간을 만드는 것, 보행자 중심의 X자 횡단보도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 예비 부모를 포함한 모든 부모에게 부모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는 법이 제정되는 것, 청주시 내 오염된 하천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청주시의회 김영근 위원장은 깊이 공감하여 해당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했으면"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청주교육지원청 표지판 설치 MOU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신재권)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미)은 지난 7일 청주시 지역 내 교통안전 취약지역의 초등학교(수곡초, 청주내곡초) 두 곳에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설치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은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의 중요성과 아동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만들기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청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2개 초등학교를 추천받아 설치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영미 교육장은 "월드비전이 청주 지역 어린

이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등하교길을 만들기에 함께 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재권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장은 "현재는 청주시 지역 2개 학교에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었지만 사업이 확장되어 청주시 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고용및직업

주거지원

보육및교육

의료및건강

요양및돌봄

정신및심리정서지원

문화및여가

권익보장및법률

일상생활지원

기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원 최종 확정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82조 5269억원) 보다 8.5%(7조497억원) 많은 89조 5766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1년도 예산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예산 8171억원이 포함돼 있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내년 예산에는 질병청 소관 예산이 제외됐다.

질병청으로 이관된 내년도 예산은 3446억원이다.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 558조원의 16.0%에 해당한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75조 7778억원으로 올해보다 8.9%, 보건 분야 예산은 13조7988억원으로 6.4% 늘어났다.

■ 예산 국회중액 주요내용

1.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 코로나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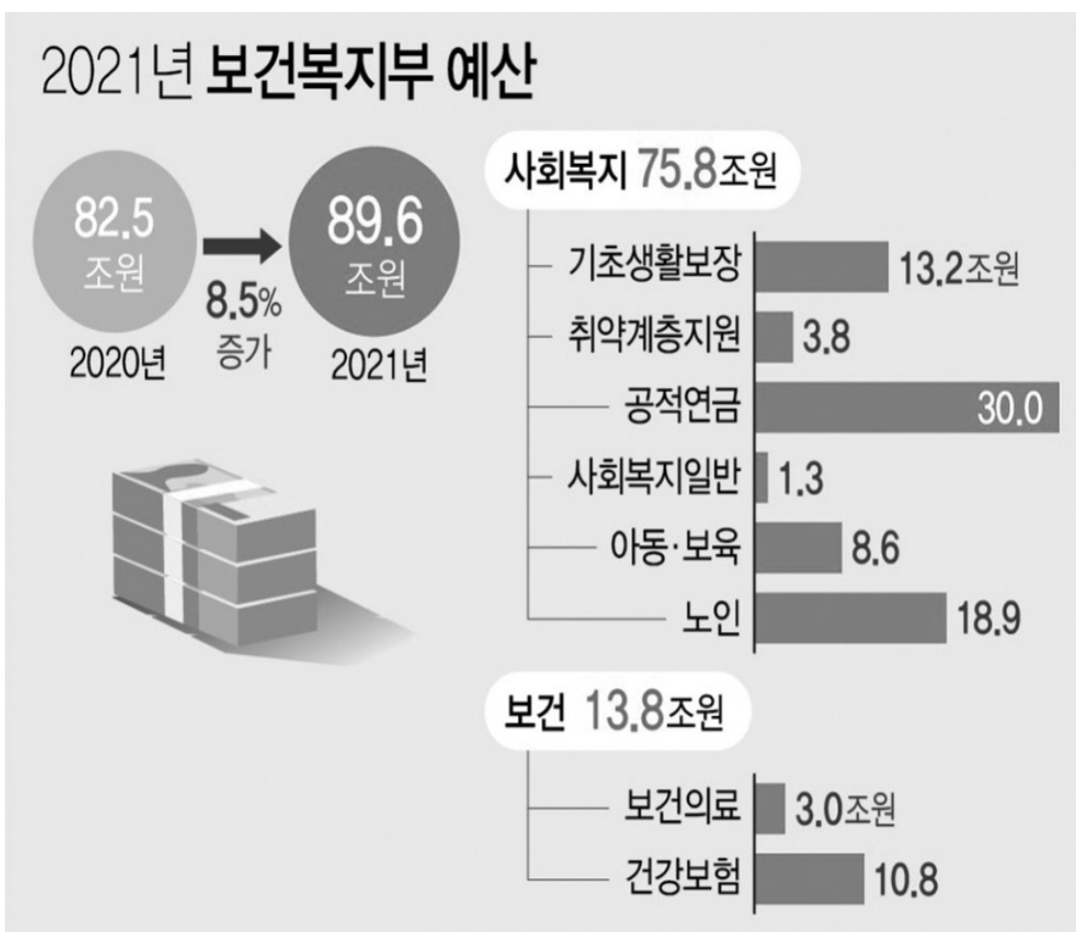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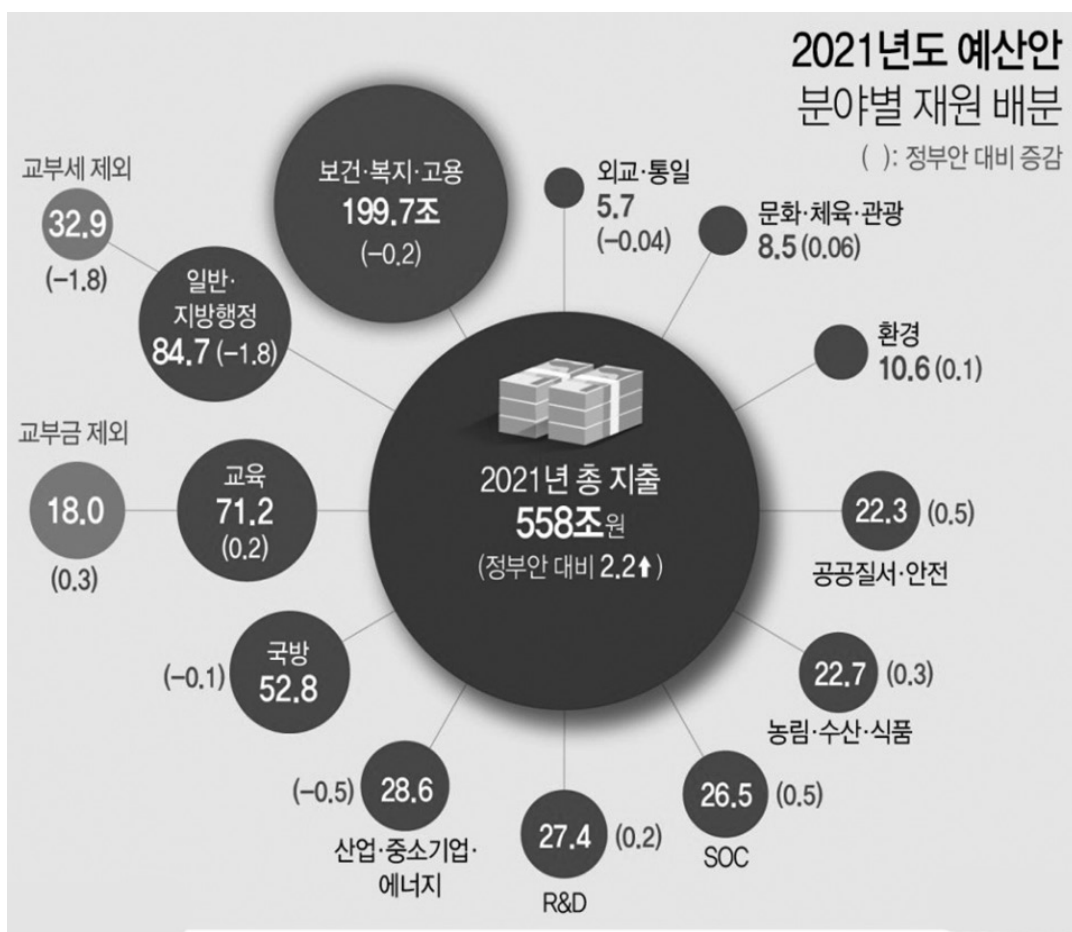
2. 감염병 대응역량 극대화
* (코로나백신) 코로나 백신 4,400만명분 물량 확보, 3,000만명분 접종 물량 확보
* (감염병 예방·대응) 감염병 전문 병원 1개소 추가 건립, 코로나블루 극복 지원 등
* (공공의료 확충)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 보강

3.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뒷받침
* 공공 전세주택 신규도입,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4. 보육·돌봄 지원 강화
* 영아·유아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부모 돌봄부담 완화

5.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및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
* (필수노동자) 택배·배달·미화원·방문 돌봄종사자 등 건강권 보호 및 처우개선
* (고용약화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센터 인력보강 등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

6. 취약계층 및 보호 지원 강화
* (학대피해아동)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인프라 확대 등 지원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돌봄부담 완화, 한부모법 개정소요 적극지원
* (장애인)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고용지원 확대
* (보훈) 참전·무공 및 4·19 공로수당, 독립유공자 지원 등 보훈 지원 강화



국회 심의 통해 감염병 대응 및 공공의료·학대아동쉼터 사업 등 증액

올해 본 예산 대비 7조497억원·8.5% 증가... 사회복지 75조8천억원·보건분야 13조8천억원 배정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기금운용계획〉

구분	2020년 본예산(A)	2021년 본예산(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출(A+B)	825,269	895,766	70,497	8.5
◇ 예산(A)	515,094	559,035	43,941	8.5
◇ 기금(B)	310,175	336,731	26,556	8.6
◇ 사회복지①	695,619	757,778	62,159	8.9
○ 기초생활보장	122,338	132,334	9,996	8.2
○ 취약계층지원	33,837	37,800	3,964	11.7
○ 공적연금	274,111	300,026	25,915	9.5
○ 사회복지일반	13,915	13,326	△589	△4.2
○ 아동·보육	85,094	85,568	474	0.6
○ 노인	166,323	188,723	22,399	13.5
◇ 보건②	129,650	137,988	8,338	6.4
○ 보건의료	27,694	30,300	2,606	9.4
○ 건강보험	101,956	107,688	5,732	5.6

단위: 억원

피해 소상공인 지원

○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재원 3,0조원 반영. 향후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 마련

감염병 대응

○ (해외백신 도입) 4,400만명분 확보를 목표로 하여, 접종률 등을 감안한 백신구매비용 0.9조원 추가 반영
○ (백신 안전성 확보) 백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공동심사위원회 운영, 국가검정 인프라 구축 등 지원(+25억원)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기획정원 3개소*를 조기 완공(24~23년)하고 신규 1개소 추가 건립(추후 공모, +158억원)
* 조선대병원(호남) + 부산대양산병원(영남) + 순천향대천안병원(충부)
○ (선별·격리 강화) 감염자 선별·격리를 위해 임시생활/격리치료비(254억원), 감염병 콜센터 인력(75명, +47억원) 확대
○ (코로나블루 극복) 자살예방, 트라우마 극복 심리지원 등 국민 정신건강 지킴사업 확대(+46억원)
○ (지방의료원 등) 필수병상(400병상), 감염병 전담병동(5개소), 긴급응급병상(200병상) 등 감염병 안전 진료환경 구축(+96억원)
○ (국립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의 간호인력·치료장비 확충(+40억원) 및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추진(신규, +44억원)

주거안정 대책

○ '21~'22년간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

택 등 전국 11.4만호(수도권 7.1만호 등) 임대주택 공급 확충

○ 내년도 저소득층·중산층에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1.9만호 확대(19→20.9만호)를 위한 예산 0.68조원 증액
○ 공공임대 주택에 중형평형(60~85m2)을 신설해 '중산층도 살고 싶은 평생주택' 4,000호 선도 공급에 109억원 증액

보육 확충

○ (0~2세 보육료) 질높은 보육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보육료 1%p 인상(+264억원)
* 보육료 지원단가: (0세) 999 → 1,012, (1세) 706 → 713, (2세) 543 → 547천원/월
- 장애아 보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아 보육료 2%p 인상(+11억원)
○ (3~5세 보육료) 유아보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보육료 2만원 인상(+2,621억원)
* 유아보육료(만원): (13~19) 22 → (20) 24 → (21) 24 → (21최종) 26만원
○ (보육인프라)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게 교사직급장수당(7.5만원/월) 한시 지원(86억원)
- 지방의 보육·양육인프라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 설치 지원(+40억원)
○ (아이돌봄) 한부모, 장애부모·아동 등에 대한 아이돌봄 국고보조비율 5%p인상(미취학 85~90, 취학 75~80%, +12억원)
○ (초등교실활용돌봄) 내년도 도입되는 학교-지자체 협업돌봄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프로그램 지원 확대(+170만원/월, +17억원)

일자리 대응

○ (일자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자리 추가 지원
- (저소득층) 저소득층 0.5만명에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는 내일키움일자리 2개월 추가 운영(244억원)
- (문화예술인) 경력 2년 미만 신진예술인에 대해 창작준비금 신규 지원(3,000명, +60억원)
- (선별인력)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재활용 폐기물 급증을 감안 선별인력(400명, 26억원) 한시 기간제 특별인력 지원
○ (고용유지)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10만명분 확대(68~78만명, 1,814억원)
○ (건강보호) 직종별 맞춤형 건강검진(5.9만명, 34억원) 및과로사 고위험군 대상 뇌심혈관 심층검진·관리(1.5만명, 33억원)
-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 실시(4,600개소, 51억원)
○ (건강센터) 근로자건강센터(44개소)에 간호사·물리치료사(67명) 추가배치 및 장비 확충을 통해 체계적 보건서비스 제공(30억원)
○ (생계지원) 코로나 긴급지원에서 소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 한시 긴급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9만명, 460억원)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인프라 확충) 학대피해아동쉼터 +5개소 추가 확대*, 229개 시군구 전체에 아동학대 상

담시설 리모델링 지원 완료(+111개소)
* 설치 개소수: (18) 68 → (19) 73 → (20) 76 → (21) 86 → (21최종) 91개소
○ (인력확대) 아동보호전문요원 조기배치 인건비(53명, 10억원), 아동 심리치료·지속적 사례관리 사업 신설(229개소, +26억원)
○ (처우개선) 아동보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2%p 인상(+2.9~+4.9%, +8억원)
○ (양육비) 한부모가정 부담완화 및 법개정 소요 대응을 위해 양육비 지원 확대(+455억원)
* 생계급여수급자 양육비 +10만원/월,
* 25~34세 한부모 양육비 +5~10만원/월,
* 청소년한부모 생계급여수급자 양육비 +15만원/월
○ (주거) 한부모가족 매입임대 지원물량(+26호), 임차보증금 인상(서울기준 8~9백만원) 등 주거부담 경감(+2.4억원)
○ (활동지원) 장기요양 전환으로 서비스가 감소하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71억원)
○ (발달장애인) 전담 거점병원 2개소 확대(+7억원), 창업지원 특화사업장 2개소 추가(+25억원) 등 발달장애인 지원인프라 확충
○ (참전·무공) 고령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수당 +2만원/월 인상(+420억원)
○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 1%p 인상(2~3%, +2억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독립유공자생활지원금 +1만원/월 인상(+22억원)
- 건립중인 임시정부 기념관의 안전 보강 및 상징시설 추가설치를 위한 재원 추가반영(+27억원)
○ (4.19혁명) 4.19 혁명에 참여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공로자에 대한 공로수당 +2만원/월 인상

■ 보건복지부 정부안 대비 증액 주요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 (363~403억 원, +40억원)
* (20) 320 → (정부안) 363 → (국회확정) 403억 원(20 대비 +83억 원, 25.9%)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중추, 시설보강)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1337~1433억 원, +96억 원)
* (20) 1264 → (정부안) 1337 → (국회확정) 1433억 원(20대비 +168억 원, 13.3%)
○ (자살예방) 자살고위험군 관리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314명~467명) 및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 증원(26명~31명)(349~368억 원, +19억 원)
* (20) 291 → (정부안) 349 → (국회확정) 368억 원(20대비 +77억 원, 26.5%)
○ (영유아 보육료) 보육료 단가(999~1,012천원, 0세반 기준) 및 장애아 보육료 인상(지원

단가 5%) (3조 3678~3조 3953억 원, +275억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 겸직원장 지원비 지급(1조 6055~1조 6140억 원, +85억원)
○ (다함께돌봄) 학교-지자체 협업모델(750실) 인건비·운영비 단가 인상 등 (395~412억 원, +17억원)
○ (아동보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76~91개소) (78~86억 원, +8억원)
○ (장애인활동지원)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 등 (1조 4991~1조 5070억 원, +79억원)
○ (장사시설) 자연장지 조성, 화장시설·봉안시설 건립 (461~558억 원, +97억 원)

■ 보건복지부 정부안 금액 최종 확정사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 (20) 89,627 → (21 확정) 95,000억 원(+5,373억 원, 6.0%)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을 '20년 19%에서 '21년 20%로 상향
* (20) 14,185 → (21 확정) 17,107억 원(+2,922억 원, 20.5%)
○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만19174원~487만6290원)
* (20) 43,379 → (21 확정) 46,079억 원(+2,700억 원, 6.2%)
○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
* (20) 70,038 → (21 확정) 76,805억 원(+6,767억 원, 9.7%)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 소득하위 40%(20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 (20) 131,765 → (21 확정) 149,634억 원(+17,869억 원, 13.6%)
○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 (20) 7,862 → (21 확정) 8,291억 원(+429억 원, 5.5%)
○ (노인일자리·돌봄)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80만 개),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충(45~50만 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0) 12,015 → (21 확정) 13,152억 원(+1,137억 원, 9.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 3,728 → (21 확정) 4,183억 원(+455억 원, 12.2%)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임

(출처: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복지광장

‘세계 장애인의 날’을 돌아보며

복지포럼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 순 희
충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우리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구축해 놓은 사회적 안전망을 순식간에 흔란에 빠뜨렸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일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 곳곳에서 아우성 일

니다. 온 세상이 순식간에 멈춘 듯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직에 놓인 많은 사람들,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만 하는 사람 등 모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감염병 시기에 더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입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매년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로 국제 연합(UN)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의 하나입니다. 세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의 촉진 및 장애인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조 수단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일입니다.

국제 장애인권 규범인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란 어떤 종류든 모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존엄성,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약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천부적 생명권이 장애인에게 있으며, 이

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이 당사국의 의무(10조 생명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형상황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11조 위형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가 있으며, 사회·경제·시민적 전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기에 장애인은 돌봄조차도 온전하게 받지 못하다 보니 가족들의 심리, 정서적 부담 및 경제적 부담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발달장애인 아들이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 속에 숨진 뒤 남편 넘게 방치된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것이기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취업현장에서도 장애인은 가장 나중에 취업 되고 가장 먼저 해고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선 민생을 챙겨야 할 정치인들은 여전히 상대 정당을 비판하기 위해 장애인 비하 발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센델은 ‘정치를 잘하기 위해 기술관료적 전문가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시민적 덕성이 요구된다. 공동선에 대해 숙고하고, 모든 면에서 시민들과 일체감을 갖는 능력 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매장을 찾은 안내견 교육 자원봉사자와 예비 안내견을 직원이 막으면서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일상에서 장애인들은 일상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해야 할 권리의 주체이며,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입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 구성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받은 사회적 명성과 내가 받은 대가와 내가 있는 위치는 곧 우리의 이웃 덕분이며, 그 모든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일상의 소중함이 너무도 그리운 오늘입니다. 시민적 덕성으로 이웃을 살피며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이 동 혁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매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회의’로 과거 두 차례의 세계 대전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하여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 UN 총회에서 지정된 기념적인 날이다.

그중에서도 우리 아동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약속은 아동권리협약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1991년 12월 10일 비준하여 함께 지키기로 했다.

이 협약은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누려야 할 생존권(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권리), 발달권(교육받고 놀 권리), 보호권(폭력과 차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권리)으로 총 네 가지의 권리가 담겨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세계대전과 같은 참혹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아동의 4대 권리를 침해받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동학대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필자는 아동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목도하곤 한다.

가정 내에서 부모의 지속적인 폭행과 같은 학대를 당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베란다로 탈출한 아이, 어린이집에서 한 달의 기간 동안 60여 차례의 학대를 받은 아이들과 같이 올 한 해만 해도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학대피해 아동들이 너무나도 많은 실정이다.

이렇듯 우리 주변만 살펴봐도 안전한 우리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것만큼 정말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앞서 언급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아동권리 침해 사례들 외에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일상 속에서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권리 침해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어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시절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어린 시절을 떠올릴 것이고 그 당시 가장 많이 찾던 장소는 놀이터였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놀이터는 우리의 기억 속에 행복했던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동네 놀이터 내 벤치 옆 재떨이에는 담배꽂이가 가득 차 있어 어른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고 놀이터 한쪽에는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쌓여있으며 놀이기구도 관리가 되지 않아 녹이 슬고 파손되어 날카로운 부분이 드러나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충분하다.

이 밖에도 일부 학교 앞 골목에서 자동차가 여전히 경주하듯 뺑뺑이 달리고 있고 아이들의 등·하굣길에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이 있어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연 현재의 우리나라는 아동의 4대 기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일지 의문이 든다.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수많은 아동 관련 사건들을 비롯하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동권리 침해 사례들에서 아이들의 보호권은 물론이고 참여권과 발달권, 그리고 생존권마저도 지켜주지 못했다. 아동의 4대 권리가 아이들의 특권이 아닌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권인 데도 말이다.

우리나라정부는 지난 7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권리의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4대 추진 전략과 9개의 중점추진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아동중심 관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아동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동의 시선에서 바라본 아동 정책 마련, 아동과 관련한 정책에 아동의 의견을 필수로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인권회의’를 맞이하여 모든 아동들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기대가 되고 아동의 인권이 결코 소소한 우리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것만큼 정말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앞서 언급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현장의 목소리

이해와 배려로 함께 사는 세상



김 영 주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교육지원팀장

최근 장애인과 관련한 뉴스가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 마트에서 시각 장애인 보조견 훈련을 위해 교육 중인 강아지와 마트를 방문했는데, 출입을 거부하며 고성어 오가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퍼피워커(puppy walker)라 불리는 자원봉사자가 거주하는 일반 가정에 1년간 위탁하여 기르며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교육 중이었다. 하지만 견주의 입장은 무시한 채 해당 마트 매니저는 거친 태도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함께 방문했을 때 훈련 중인 강아지는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시각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달고 있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다.

또 다른 뉴스에서는 어느 시각장애인

보조견과 밥을 먹으려다 식당에서 무려 7번이나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 40조에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 혹은 교육 중인 훈련사와 함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시각장애인이 처한 상황 이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임금차별, 학대, 방임, 주변 의 따가운 시선들을 느꼈던 사례들이 종종 뉴스에 거론되곤 한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든다. 장애인 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과 책무는 어디까지인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우리 사회로부터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맞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은 것은 심심치 않게 느낄 수 있다.

장애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1980년대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없었기에 병신 아니면 불구자였고 개별 장애를 지칭하는 맹인, 절름발이 등의 부적절한 용어가 언론에서도 쓰이기도 하였다.

장애인관련법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장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장애자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많다. 1980년대 후반 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장애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장애우는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 없는 사람 모두가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장애우란 내가 나를 지칭할 수 없고 타인이 나를 불러 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주체적인 용어이다.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비하는 아닌지 짚어볼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의 법적인 공식 용어는 ‘장애인복지법’이고 ‘장애인’이다. 장애자 또는 장애우로 혼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다. 시설 휴관과 폐쇄, 면회 금지 등에 따른 장애인 개인의 문제와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UN(United Nations)은 코로나바이러스

스 위기 동안 건강, 집단시설 환경, 지원 서비스, 교육 분야에서의 영향 이외에도 고용,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추가로 주문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 시장에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운영 단축과 휴관으로 생계와 사회활동에 직접 타격을 받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시설 휴관 및 폐쇄 등으로 인한 중증장애인이 가정 내 돌봄, 부양에 따른 보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동반될 수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도 사회로부터 단절감, 고립감을 느끼며 불안과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다. 장애 유형이 다양하고 그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룰 수는 없지만 지원 방안이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지원 현황과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정책 및 제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필자가 위 내용들을 다루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개선해 갔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싶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많은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닿아야 할 시기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누군가는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를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호닥터 사업 안내

법률호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원만한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wma7259@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호닥터



법무부



충청북도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원명안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실질적인 대표는 다른 사람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제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위 지인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대여자인 제가 사업상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요?

명의대여와 법적책임

A. 최근 명의대여로 인한 법적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명의대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명의대여로 인하여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명의대여자를 대표자라고 생각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명의대여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실제 사업자가 다른 사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명의대

표인 명의대여자가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세채무를 부담하지 못한다면 명의대여자의 재산에 압류가 되거나 경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명의대여로 인하여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거나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하여 준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봉사단

보배봉사단, 연탄나눔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보배봉사단(단장 이슬기)은 지난 11월 17일 청주시 청원구 일원에서 취약계층 가구

(청원구청 의뢰 5가구, 각 500장)를 대상으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보배봉사단은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촉된 신규 봉사단체이다. 보배봉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이웃과 더불어 사

는 세상에 소소한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며, 앞으로도 봉사에 열심히 임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 라고 말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 관계자는 보다 많은 지원을 약속하며 보배봉사단의 활발한 봉사활동을 기대해본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 (cbssn@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복지정보 제공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재가장애인 재택고용사업

- 신청대상: - 청주시 거주 장애인 및 장애인가정 - 19세(고등학교졸업예정자)이상
■ 장소: -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 한울타리 작업장 - 재가장애인 가정 내
■ 모집기간: 상시모집(*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043-252-9720)
■ 참고: www.woorinet.or.kr

[사피엔스4.0]국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사다리아저씨 모집안내

- 신청자격: 만10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모집인원: 연간 5명(연차 별 확대 예정)
■ 모집기간: 상시 모집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20만원 지원(협의 후 확정)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apiens.or.kr)신청서 다운 및 이메일(ocean@sapiens.or.kr) 제출
■ 문의: 사피엔스4.0(070-7005-6077)

[아산사회복지재단]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 신청서 작성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 문의: 02-3010-2566,2585

[사랑의열매&마중물]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참여자 & 사업체 모집

- 신청 및 모집기간: 2020.2.10.(월) ~ 2020.12.20.(일)
■ 대상: - 훈련생: 만 15세 이상의 중증정신장애인으로 취업의사가 있는 당사자 - 사업체: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 지원고용(훈련수당) 지원금 (1인기준)
- 훈련생: 훈련준비금-40,000원 (6일 이상 출석 시 지원), 일반 1일 기준 17,000원
- 사업주: 훈련보조금-1일 19,340원
■ 모집기간: 상시모집
■ 지원고용 훈련기간: 사전훈련(최대6일), 현장훈련(4주~6주), 훈련시간(1일 4~8시간)
■ 주관: 우리들정신건강센터
■ 문의: 043) 267-5835, 285-5835
■ 참고: http://www.woorideul.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함께 여는 지동문' 무료자동차 문설치 캠페인 공고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
■ 선정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 문의: 1899-7081 또는 coad@coaddoor.com
■ 참고: https://www.bokji.net

[밀알복지재단]2020년 국내장애 및 저소득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지원내용: 장애인영양아 의료비, 장애인동결연의료비, 장애인아동 수술비, 안면장애인 수술비, 위기가정 지원
■ 기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중위소득 80% 미만)
■ 신청기간: 2020.3.1.(일) ~ 2020.12.31.(목)
■ 신청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 밀알복지재단 법인메일로 상시접수
■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조(http://www.miral.org)
■ 문의: 국내사업부 지원사업 담당자 (070-7462-9135)

[여성사회복지재단]함께독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도서 보급 공지사항-신청양식 확인-이메일 발송

- 신청기간: 수시
■ 배서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착불 5,500원)
■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 문의: 여성사회복지재단 사무국 ☎ 02-553-3488

[희망나눔 주주연대]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재활치료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성인 가정(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신청
■ 심사 및 선정절차: 1차 서류 심사(검토) 후 선정자에 한해 2차 추가서류 안내 및 가정방문
■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02-3789-2555) / hope@hopeon.or.kr
■ 참고: https://www.hopeon.or.kr/html/index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 사업

- 지원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이 있는 가구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0.5.27.(수) ~ 12.31.(목)까지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자원 봉사자 모집

▶ 미술활동 봉사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20.12.1 ~ 21.1.31
전화번호: 043-285-0102

▶ 밀반찬 배달 봉사

관리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20.12.1 ~ 21.1.31
전화번호: 043-835-4288

▶ 사무보조 봉사

관리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활동기간: 20.12.1 ~ 21.1.31
전화번호: 043-212-9194

▶ 이마음 봉사

관리센터: 즐거운생활재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20.12.1 ~ 21.1.31
전화번호: 043-216-1365

▶ 가정방문 심리상담 봉사

관리센터: 청주상당노인복지관
활동기간: 20.12.1 ~ 21.1.31
전화번호: 043-288-3060

▶ 중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남이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20.12.1 ~ 21.1.31
전화번호: 070-4149-2345

▶ 저소득 가정 11 멘토링

관리센터: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기간: 20.12.1 ~ 21.1.31
전화번호: 043-857-5960

▶ 재활프로그램(공예 등) 보조

관리센터: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기간: 20.12.1 ~ 21.1.31
전화번호: 043-291-0199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20.12.1 ~ 21.1.31
전화번호: 043-267-4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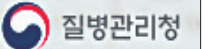
▶ 아동학대예방 인형극 공연 봉사

관리센터: 충북남부아동전문기관
활동기간: 20.12.1 ~ 21.1.31
전화번호: 043-731-3685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금, 검사받아주세요! 전국대상(거리두기 2단계부터)

일상 속 잠재된 감염을 찾는 길은 검사 뿐, 가족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서 의심되면, 나부터 적극적으로 검사받아 주세요!

대상 확대

무증상이시거나 확진된 분과의 접촉 경험이 없어도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 단, 검사증명서 요구 시 본인 부담금 발생 가능(회사, 요양원 제출 등)

유의 사항

음성결과라도 코로나19는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은 항상 준수해 주세요!

복/지/만/평

일상

이창신 www.bokmani.com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